

세대 간 신앙의 연결과 성장:
EPIC 이론을 적용한 소그룹 모델 제안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진익창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Ikchang Ji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INTERGENERATIONAL FAITH CONNECTION AND GROWTH: EPIC THEORY-BASED SMALL GROUP MODEL PROPOSAL

Ikchang Jin

Dallas Central Methodist Church, Dallas, USA

This study addresses the generational faith gaps and conflicts currently facing Korean churches by taking a close look at each generation and proposing a small group ministry model grounded in Leonard Sweet's EPIC theory, which focuses on 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s, and Connection. For this purpose, the age groups are categorized into four cohorts—1020 (teens and twenties), 3040 (thirties and forties), 5060 (fifties and sixties), and 7080 (seventies and eighties)—and their respective social, cultural, and faith-related challenges are examined.

The 1020 generation is highly adept in digital environments and values personal meaning and authenticity. Rather than one-way doctrinal teaching, they look for church communities that offer hands-on experiences and opportunities for active participation. The 3040 generation often faces faith crises under the pressures of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making empathetic support and practical assistance from the church and older generations especially important. Meanwhile, the 5060 generation must serve as a bridge between older and younger members, but they also face the challenge of redefining their religious and social identities as they approach retirement. Lastly, the

7080 generation, which once powered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through prayer and dedication, may struggle with feelings of isolation or a disconnect in passing on their faith due to generational divides.

This paper proposes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four EPIC elements—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s, and Connection—to small group ministry, tailored to each generation's context and needs. Through this approach, the diverse generations within the church can learn to communicate, respect, and unify, going beyond mere doctrinal instruction to form a vibrant faith community that truly resonates in daily life.

국문초록

진 익 창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 달라스, 미국

이 논문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대 간 신앙 단절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을 토대로 한 소그룹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를 1020, 3040, 5060, 7080으로 분류하고 각 연령층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신앙적 과제를 살펴보았다.

젊은 세대인 1020층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개인적 의미와 진정성을 중시하기에 일방적인 교리 전달보다 실제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요구한다. 한편 3040세대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압박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기 쉬우며 교회와 기성세대의 현실적 지원과 공감에 절실하다. 5060세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잇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은퇴와 함께 신앙적·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도전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7080세대는 한국 교회 부흥의 산증인이자 기도의 기둥 역할을 해왔으나 세대 차이로 인해 고립되거나 신앙 전수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각각의 세대가 처한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경험(Experience)과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그리고 관계(Connection)를 핵심으로 삼는 EPIC 이론을 소그룹 사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소통하고 존중하며 연합함으로써 단순한 교리 학습이나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그림목차	iii
감사의글	iv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세대별 특징과 신앙의 과제	4
A. 1020 세대	4
B. 3040 세대	6
C. 5060 세대	10
D. 7080 세대	13
III. 소그룹의 이해	16
A. 소그룹의 목적	16
B. 소그룹의 특징	17
C. 소그룹의 중요성	19
1. 성경적 근거	20
2. 신학적 근거	22
IV. EPIC의 이해.....	25
A. EPIC 이론	25
1.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29
2.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31

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35
4.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39
V. 세대별 EPIC 소그룹 적용: 뉴욕한인교회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사례.....	42
A. 102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42
B. 304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47
C. 506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51
D. 708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52
E. 각 세대별 EPIC 소그룹 평가.....	55
VI. 결론	57
참고문헌	60

그림 목차

<그림 1> 코로나 동안 신앙 수준 변화.....	7
<그림 2> 3040 세대 일상 생활 만족도.....	9
<그림 3>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9
<그림 4>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	10
<그림 5>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	43
<그림 6> 창조 이야기 설교 이후 동물원 방문.....	44
<그림 7> 지역 공원과 협력하여 나무 돌보기 체험학습.....	45
<그림 8> 청장년 속회 광고 내용.....	47
<그림 9> 교회 차원의 식사 제공 및 차일드 케어 제공.....	48
<그림 10> 속회 진행 가이드 라인.....	50
<<그림 11> 평생대학 안내지.....	54

감사의 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 과정을 마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논문을 마치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로막힐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학업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모님과 누나에게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님께 배운 성실함과 누나의 진심어린 조언들로 인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끊임없는 응원으로 학업의 마지막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적응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배연택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조나은 목사님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내와 함께 학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과 부르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는 여정이 늘 행복하고 기쁨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내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5월

진 익 창

제 I 장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절되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중장년층은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을 돌보기 위한 책임감으로 신앙은 뒤로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박영호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시사하고 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계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신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에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야 한다.”¹ 그러나 현대의 사회에서 세대간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세대 간의 이해와 문화의 차이가 깊어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성 세대의 전통적인 신앙과 교육 방법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레너드 스윗은 현대 문화에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EPIC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찬 교수는 EPIC 이론에 대해 이렇게

¹ 박영호, *세대를 잇는 신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2), 45.

말한다. ““EPIC 이론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신앙을 경험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실천적 모델”²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 각 세대가 참여하여 신앙의 전수를 만들어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PIC 이론은 경험 중심적(Experiential) 신앙 활동, 공동체적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 기반의 신앙 형성(Image-driven), 그리고 연결된 네트워크(Connection-based) 신앙을 제안하면서 각 세대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각 세대가 연결되어 연합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세대별 특징과 정체성 그리고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연구하고 EPIC 이론을 적용하여 세대별 소그룹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 특별히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별 특징을 파악하여 1020, 3040, 5060, 7080으로 나누어 각 신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평가하여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예측해보고자 한다.

B.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교회 안의 세대별로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양하게 살펴본 후 EPIC 이론을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0대부터 80대까지 각 연령대가 어떤 환경에서 신앙을 형성해 왔는지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살펴본 뒤 세대별로 마주하고 있는 대표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EPIC 이론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세대가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 운영 방법과 활동 내용 등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² 김지찬,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9), 87.

구성된 프로그램이 실제 전체 교회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그룹 운영과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다.

연구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대가 가지는 특징과 신앙적 고민을 조사, 분석하는 부분으로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지닌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신앙생활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둘째는 EPIC 이론을 기반으로 소그룹 모델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소그룹의 목적과 필요성, 운영 방식, 예배 형태, 그리고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그룹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교회가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 전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마다 각기 다른 삶의 무대에서 신앙을 쌓아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특히 서로 다른 연령층이 소그룹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서로 공감과 존중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교회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제 II 장

세대별 특징과 신앙의 과제

A. 1020 세대

10대와 20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성장해온 세대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쏟아지고 개인화되어 가는 문화들을 경험한 이 세대는 전통적 권위에 메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이 세대의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젊은 세대의 신앙은 기성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는 삶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 보다 스스로 참여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 선교 연구원장인 백광훈 원장은 “밀레니얼 세대는 영적 탕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 이 세대는 사역보다 관계성, 탁월성보다 진실성, 논리보다 체험, 해답보다 신비, 확실성보다 다양성, 목적지보다 여정을 중요시한다”³ 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교리의 일방적인 전달과 교육 보다는 진실되게 형성되는 신앙과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³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있는 신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세대는 참여와 진정성과 동시에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흥미를 가지는 경향이 보여진다. 이것은 이 세대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뉴트로’ (New-tro)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뉴트로 문화를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이민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운(New) 복고(Retro)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복고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지칭한다”⁴ 또한 교회의 차원에서는 이 문화를 이렇게 해석한다.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비문화로서의 뉴트로 트렌드가 아니라 옛 것에 관심을 보이는 1020세대들이다. 기독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적 요소가 가득한 교회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예배보다 예전이 풍부한 예배에 더 관심을 보인다”⁵ 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1020세대들이 어떤 형식이나 권위 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교회의 전통적 영성과 예전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종교와 멀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무종교인 비율은 72.4% 이고 기독교 청소년은 13.6%에 불과하다고 한다.⁶ 또한,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세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종교 보다는 대중 문화와 대안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영적 문화에 익숙하

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⁵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⁶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270> [2025. 3. 3. 최종 접속]

다. 한 조사에서는 젊은 개신교인들 절반 가까이 (45.5%) 사주나 타로와 같은 문화를 경험해 보았다고 한다.⁷ 이러한 현상은 1020세대들이 영적 필요를 해결 하는 방법을 교회 밖에서 찾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기성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권위적이고 경직된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성 세대의 교회 문화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쉽게 이탈하는 이 세대는 이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는 소통 그리고 그들의 세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1020세대에게 신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을 확장되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세대에게 접근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B. 3040 세대

3040세대는 기성 세대와 MZ 세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이다. 그래서 흔히 “신세대도 원세대도 아닌 낀 세대”⁸ 라고 불린다고 한다. 이 세대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태어나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지켜보며 성장했다. 실제로 3040세대는 절반 이상이 모태신앙으로 부모 세대의 영향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세대이다. 200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주일학교와 청년기를 보냈던 세대이다.⁹ 사회적으로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경제 성장을 지나 IMF 외환위기의 격변의 시대를 경험했

⁷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27> [2025. 3. 3. 최종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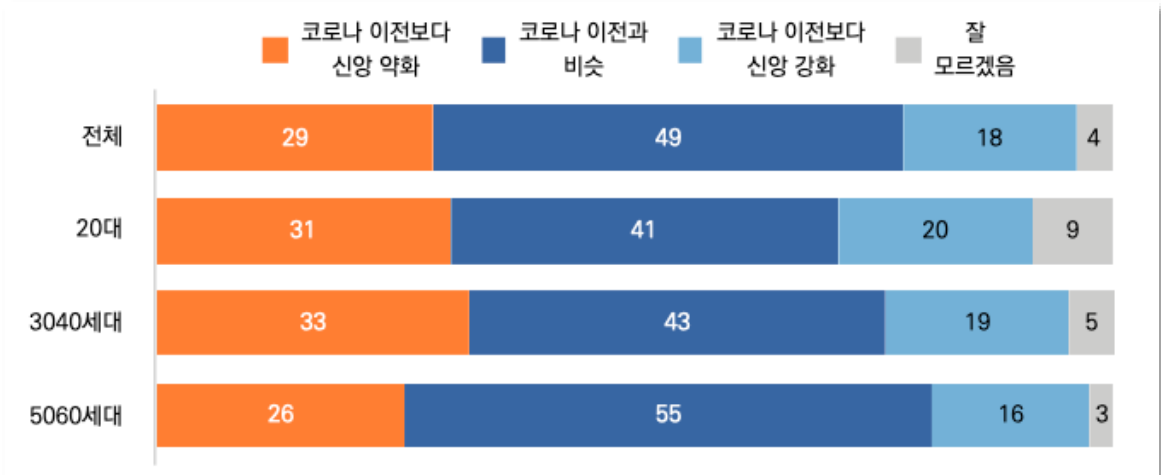
⁸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⁹ <https://www.cricum.com/future/?idx=19206019&bmode=view> [2025. 3. 3. 최종 접속]

고 현재는 직장에서 핵심적 경제 활동 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 세대로써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3040세대는 개인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했던 세대이고 삶의 현장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세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대의 신앙생활은 각 세대들 중 가장 불안하고 약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 비율이 3040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코로나 동안 신앙 수준 변화¹⁰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참석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천”의 주도층도 3040세대라는 분석이 있다.¹¹ 이 세대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 세대에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23%로 낮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

¹⁰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¹¹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을 갖는다는 응답이 34%로 더 높게 나타났다.¹²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갈망 보다 현재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써의 신앙 생활에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80%는 과거 혹은 현재 신앙에 회의를 느낀적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도 회의 중이라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다.¹³ 향후 이들의 신앙 전망을 보았을 때 3040세대의 절반이 10년 후에도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겠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¹⁴ 정리해 보면 3040세대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 정체성과 소속감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상당수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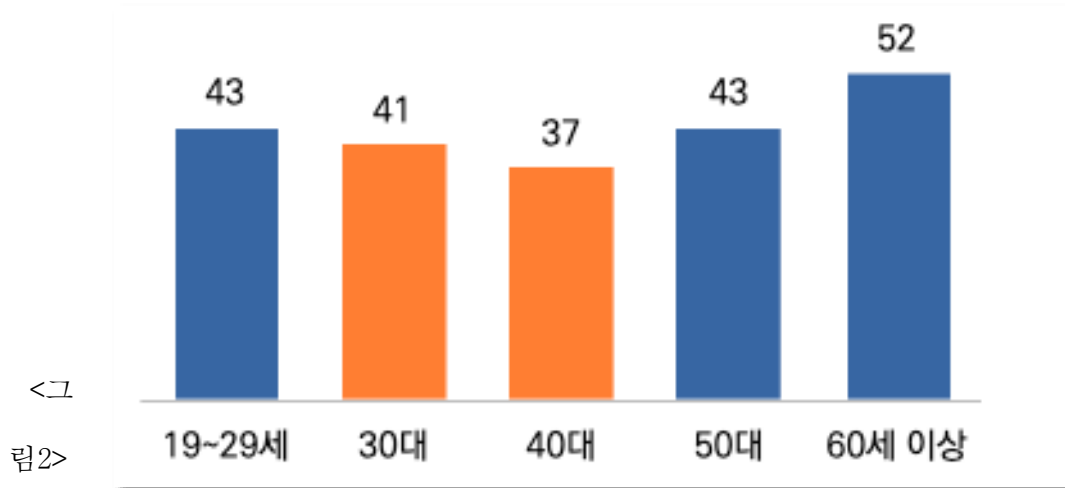
3040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은 삶의 무게와 신앙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격변의 시대를 지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젊은 시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시작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지만 아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까지 실제적 신앙 경험을 하기에 삶에 대한 여유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계속되는 경쟁 구도와 끊이지 않는 업무들, 가정에서의 육아와 동시에 찾아 오는 가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들이 겹치면서 신앙 생활에는 소극적으로 되기 쉽고 자칫하면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3040 직장인의 68%가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응답했고 기혼자의 57%가 육아와 가사로 지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신

¹²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¹³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¹⁴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양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30%가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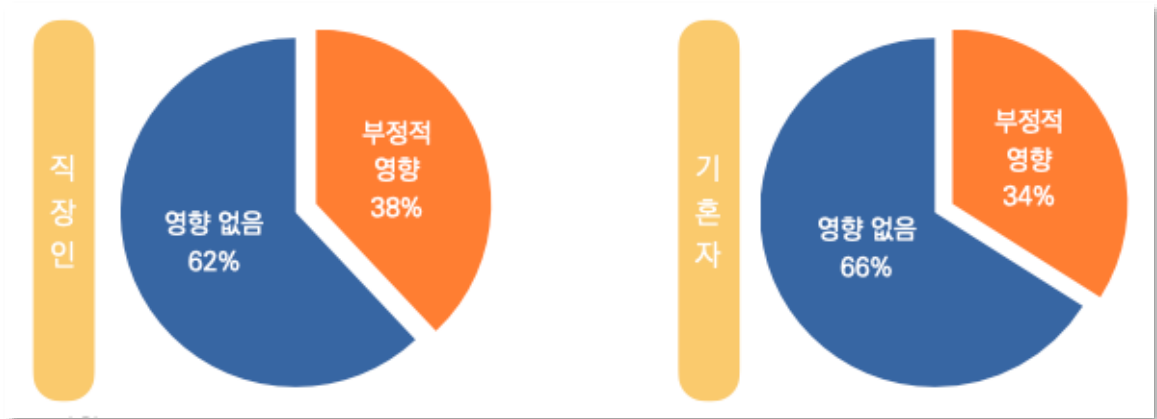
3040세대 일상 생활 만족도¹⁵



<그림3>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¹⁶

¹⁵ 한국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¹⁶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그림4> 직장/사회생활/가사/육아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¹⁷

결국 3040세대의 신앙적 과제는 신앙적 혼란기에 있는 이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가고 성숙한 신앙으로 정착하게 돕는 것이다. 교회와 기성세대가 이 세대를 향해 이 힘든 시기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장과 가정에서 신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울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는 3040 세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 소속감을 만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어 그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하다.

C. 5060 세대

506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이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적 변화의 시대를 몸소 경험했고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

¹⁷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년 6월 10일 발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대상,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을 갖거나 스스로의 신앙을 재정립했다. 5060세대는 교회의 부흥기를 통해 뜨거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고 현재 교회안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대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이미 자녀를 키워 놓았고 이들 스스로는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생에 대한 성취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5060세대에게 신앙은 삶의 중심이자 인생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도가 높아서 현재 교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9%에 이를 정도로 본인이 속한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¹⁸ 또한, 교회 내에서 장로와 권사 등 중요한 리더십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대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5060세대에게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¹⁹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앙은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힘든 현실을 버티게 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버티며 나아가게 했다. 실제로 이들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면 구원/영생을 위해 신앙 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라는 응답은 28% 였다.²⁰ 다시 말해, 이들 세대는 자신의 삶에서 쌓아온 신앙의 유산으로 비교적 명확한 신앙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5060세대들은 인생 속에 신앙이 점점 깊어졌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3040세대와 비교했을 때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답한 이들이 43%로 “약해졌다”는 응답(20%)의 두 배를 넘는다는 조사가 있었다.²¹ 이들 세대는 영적인 지구력과 인내를 두루 갖춘 세대

¹⁸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99> [2025. 3. 3. 최종 접속]

¹⁹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2025. 3. 3. 최종 접속]

²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2025. 3. 3. 최종 접속]

²¹ <https://www.gawpc.com/post/5060세대-95퍼센트-신앙은-역경을-이기는-힘> [2025. 3. 3. 최종 접속]

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꾸준한 성도들이 많다.

5060세대가 가지는 신앙의 과제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세대 교체와 신앙 전수의 과제이고 두번째는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지속하는 과제이다. 먼저 이들은 한국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하는 세대로써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60의 자녀 세대들은 신앙을 떠나 있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 전수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다. 따라서 5060의 세대는 책임감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세대는 곧 은퇴시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신앙을 삶의 새로운 단계에서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 5060세대들은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하며 찾아올 수 있는 삶의 공허함이나 정체성의 상실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 2의 신앙의 성장기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적 차원에서는 이들이 은퇴 이후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처럼 5060세대에게는 연령별로 각자에게 맞는 사역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며 신앙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은 교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자신의 오랜 신앙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혜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5060세대의 헌신과 영성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 과제라 할 수 있다.

D. 7080 세대

7080세대는 한국 전쟁 전후로 출생하여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살아 왔다. 이

들은 대부분 유년기나 청년기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스러운 사회를 경험했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희망을 찾은 신앙 1세대이다. 기독교의 경우 이 세대층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 개종자들도 많지만 1960년대 이후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신앙을 갖게 된 이들도 일부 있다. 7080세대의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초창기 부흥과 성장에 직접 기여하거나 그 은혜를 입은 세대로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산 증인들이다. 이제는 대부분이 은퇴하여 여가 시간이 많고 사회보다는 가족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세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층으로 교회 내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상진 교수는 “개신교의 경우 30대 이하 전 연령에서 교인 수가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80%가 증가했다”²² 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080세대는 현재 교회를 구성하는 다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초고령화로 이어지면서 7080세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7080세대 신앙의 특징은 깊은 신앙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개인의 신앙 생활 (새벽기도, 성경통독 등)을 꾸준히 이어왔다. 예배와 교회 모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뉴시니어층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교회 참여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준다.²³ 과거의 상황보다 건강과 교육 수준이 높은 뉴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70대 전후의 성도들은 교회의 어른으로 새로운 사역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의 신앙은 보수적이고 교리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

²²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0096> [2025. 3. 3. 최종 접속]

²³ <https://www.christiantoday.us/27319> [2025. 3. 3. 최종 접속]

른 세대와 다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가 깊어진다. 실제로 많은 7080세대들은 고난의 삶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안을 삼고 장례 문화나 병중에서 특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7080세대 성도들도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재영 교수는 “20대 · 30대 · 40대의 성향과 니즈가 전부 다르듯이 시니어 세대도 마찬가지”²⁴ 라며, 현재 교회들이 60세 이상을 한 범주로 묶어 목양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년층 내에도 연령대별로 다른 고민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년 세대 역시 세대 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교회를 노년기에 가장 좋은 관계의 터전으로 인식하며 교회 역시 이들의 헌신과 기도를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동시에 고령 성도들은 육체적 제약과 외로움 등의 문제를 영적 그리고 정서적 힘써 돌보아야 한다.

7080세대의 신앙적 과제는 두 세대에 걸친 다리 역할과 노년기 영성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세대는 자신의 또래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교회 전체를 품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없지 않다. 산업화 세대인 노년층에게 밀레니엄 이하 젊은 세대는 때로 무례하고 책임감 없으며 소비주의적으로 비추어 지고 반대로 젊은 층에게 노년 세대는 권위적이고 융통성 없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간 상호 이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노년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유산과 지혜를 강요하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젊은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하며 배울 점을 찾을 때 세대 간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노년층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그들만

²⁴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81> [2025. 3. 3. 최종 접속]

의 폐쇄적 문화로 고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둘째, 7080세대 성도 개인의 과제로 신앙의 완주가 있다. 일평생 지켜온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은 모든 노년 성도의 바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날로 쇠하여가는 육신과 주변의 상실감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드는 영성이 필요하다. 교회는 노년목회를 통해 영적 돌봄과 공동체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적인 심방과 상담을 통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돌보아 주고 연로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을 잃거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며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함께한다는 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과제이다. 이러한 돌봄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7080세대는 교회 안에서 귀중한 지혜의 원천이자 기도의 기둥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 III 장

소그룹의 이해

A. 소그룹의 목적

소그룹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모임을 의미한다. ‘그룹(group)’이라는 단어에 ‘작다’는 뜻의 한자 ‘소(小)’가 더해져 적은 인원수로 이루어진 모임이나 집단을 뜻한다. 즉, 몇몇 사람이 모여 형성된 작은 공동체를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교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존재한다. 성경 공부, 속회, 전도팀, 제자훈련, 각 부서 모임 등 교회마다 다양한 소그룹이 운영되며, 소그룹이 없는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그룹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소그룹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 Neal F. McBride는 소그룹을 “신자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교제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모이는 모임”²⁵이라고 설명한다. 즉, 신앙 성장, 친교, 봉사, 나눔 등 소그룹의 성격과

²⁵ Neal F. McBrid,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

상관없이 그 안에서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둘째, 소그룹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소그룹은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집단에 속해 있으며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한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여러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교회의 소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대그룹인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을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앙 교육과 개인의 신앙 성장의 장이 되며 교회의 과제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의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물론 소그룹의 형태나 운영 방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그룹은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B. 소그룹의 특징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전체와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신앙 성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그룹의 형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소그룹의 명칭이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고 한다.²⁶

첫째, 소그룹은 ‘자발적인’ 모임이다.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해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소그룹은 ‘대면 모임’의 형태를 가진다. 의사소통에는 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한데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의사소통의 90%가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

²⁶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24-25.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때 더 깊은 교류가 가능하다. 셋째, 소그룹은 보통 3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이 12명을 넘어가면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인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모이는 것은 모임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다섯째, 소그룹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모인다.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섯째, 소그룹은 ‘배움과 발견’을 위한 장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처럼 소그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운영할 때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소그룹은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입급까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단순히 모임의 형식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이유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소그룹이 전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소그룹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그룹의 특징을 두 가지 적용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전체 그룹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한다. 교회 안에서는 임원회, 속회 모임,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신앙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교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즉, 교회의 소그룹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는 의도적인 모임이다. 둘째, 소그룹은 관계 중심의 모임이다. 소그룹의 규모는 보통 3명

에서 12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을 함께 나누는 교회 소그룹일수록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성희는 “소그룹은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공동체”²⁷ 라고 말한다. 실제로 소그룹은 단순히 지식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다. 또한 소그룹은 내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와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개인의 신앙적 필요와 고민을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회 전체가 다룰 수 없는 세부적인 사안을 소그룹에서 먼저 논의하고 실천하는 기능을 한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러한 역할을 보완하고 교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그룹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모임임을 알 수 있다.

C. 소그룹의 중요성

소그룹의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때, 소그룹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4월, 전국의 기독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적극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²⁸

이처럼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공동체 전체도 함께 성장하지만, 반대로

²⁷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128.

²⁸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ll> [2025년 3월 4일 최종접속]

소그룹이 정체되거나 약화되면 교회 공동체 역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교회가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소그룹의 중요성은 단순한 실용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성경적 근거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소그룹 구조가 등장한다. 첫번째로,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그룹 체제가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했다.²⁹ 또한,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정하여 소그룹 형태로 파견한 사례가 있다.³⁰ 이 외에도, 전쟁을 대비해 소그룹 단위로 부대를 조직하거나³¹, 재판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리더들을 세워 역할을 분담한 사례³² 등을 통해 소그룹의 구조가 구약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도 존재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소그룹을 조직하여 교육을 진행했다.³³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 율법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회

²⁹ 출18:20-22

³⁰ 민13:1-16

³¹ 삿5:1-11, 대상12:32

³² 역대하19:11

³³ 역대하17:7-9

중 사이를 다니며 말씀을 설명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³⁴ 이와 더불어, 신앙과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 소그룹도 있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형성했고,³⁵ 다윗과 그의 뜻을 함께한 사람들 역시 같은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이루었다.³⁶ 신약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등장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가까이 두고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셨으며,³⁷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소그룹 단위로 파송하셨다.³⁸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소그룹 형태로 모여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었다.³⁹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은 저마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전체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예식을 주관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⁴⁰ 또한, 선지자 그룹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갈 때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며 회복을 돕는 역할을 했다.⁴¹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으로 운영되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³⁴ 느8:8-9

³⁵ 왕하6:14-19

³⁶ 삼상22:1-2, 삼상27:2

³⁷ 마10:1-6, 막3:13-19, 눅6:12-16

³⁸ 마10:1-4, 막3:16-18, 눅6:12-14, 행1:12-13

³⁹ 행1:12-13, 행2:46, 행6:3

⁴⁰ 레9:1-24, 민18:1-7

⁴¹ 사17:12-14, 사27:1-13, 사43:1-7, 렘4:1-4, 렘31:1-14, 렘33:1-26

구제 활동에도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열정을 기울였다.⁴²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신학적 근거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 속에서 소그룹은 단순한 교회 내 친교 모임이 아니라 신앙을 성장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실천적 도구로 자리 잡아 왔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조직적인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속회(Class Meeting)'라는 소그룹 형태를 만들었다. 웨슬리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진정한 성화는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⁴³ 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고 성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그룹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또한 "혼자서는 기록해질 수 없다"⁴⁴고 강조하며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은 감리교 소그룹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 신앙적 성장과 실천을 위한 구조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웨슬리는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이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성도들이 서로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속회를 조직했다. 속회는 약 10~12명의 성도들이 모여 신앙과 삶을 나누는 모임으로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웨슬리는 속회가 신앙 성장의 필수적 요소

⁴² 행2:47, 행5:42

⁴³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7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23.

⁴⁴ *ibid.*, 302.

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며 서로의 격려와 권면 속에서 성장하게 하신다"⁴⁵고 기록했다. 즉,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에서는 소그룹이 개인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된다.

또한, 감리교 신학에서 소그룹은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으로 이해될 수 있다. 웨슬리는 기도, 말씀 묵상, 성례전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웨슬리는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될 때 더욱 풍성해진다"⁴⁶고 강조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특히, 감리교의 소그룹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모임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장으로 이해되었다.

감리교 전통에서 소그룹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웨슬리는 소그룹이 단순히 신앙을 나누는 공간을 넘어 실제적인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⁴⁷라고 주장하며, 속회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실천적 신앙을 강조했다. 초대 감리교회는 속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그룹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과 선교 사역을 전개했으며 이는 감리교회의 중요한 사역 모델로 자리 잡았다. 웨슬리는 특히 신앙이 공

⁴⁵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London: Epworth Press, 1952), 49.

⁴⁶ John Wesley, *Sermon 16: The Means of Grace,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5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45.

⁴⁷ John Wesley, *Journal, 1739,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1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210.

동체적 책임을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 받았으며, 그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⁴⁸고 기록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발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구제에 힘썼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⁴⁹고 기록하고 있다. 웨슬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삶을 감리교 속회에서 구현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초기 감리교회는 가정 모임을 중심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했다.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은 단순히 대형 예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작은 모임들에서 시작되었다"⁵⁰고 말하며 소그룹이 교회 성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감리교의 신학적 전통에서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신앙 성장, 영적 훈련, 은혜의 경험, 그리고 선교적 실천을 위한 핵심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웨슬리가 강조한 속회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감리교회 내에서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신앙을 실천하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다. 소그룹을 통한 신앙 훈련과 실천이야말로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신앙 실천이 감리교회의 핵심 가치임을 알 수 있다.

⁴⁸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8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327.

⁴⁹ 행4:32-35

⁵⁰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London: William Bowyer, 1765), 112.

제 III 장

EPIC의 이해

A. EPIC 이론

EPIC 이론은 레너드 스윗 박사⁵¹가 제시하는 개념으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지나며 교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EPIC은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s),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스윗 박사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현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⁵² 스윗 박사는 교회가 EPIC 이론의 요소들을 적용해 봄으로 현대 사회와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히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 EPIC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경험(Experience)의 중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는 인기있는 음료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들이 스타벅스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커피향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⁵¹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는 미국의 저자, 설교자, 학자다. 드루대학교에서 스텐리. 존스 교수직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있다.

⁵²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22.

여러 감각을 자극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집약되는 커피 체험을 하게 된다.”⁵³ 매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악, 직원들의 편안한 미소등이 소비자에게 풍성한 경험으로 제공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는 것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윗 박사는 교회가 신앙을 이론적인 해석이나 교리가 전달되는 것에 벗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들으며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⁵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와 해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과 경험을 통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참여(Participation)의 필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현대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참여하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⁵⁵ 스윗 박사는 일상에서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진정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타벅스

⁵³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50.

⁵⁴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5.

⁵⁵ Ibid., 101.

라는 브랜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느끼며 더 나아가 참여하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참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그 공간에서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문화에 동참하게 된다. 스윗 박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교회와 예배 등을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경험하고 신앙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들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⁵⁶ 이 말은 성도들이 예배와 성례들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가치를 몸소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미지(Images)의 역할이다. 스윗 박사는 말한다. “스타벅스는 매장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스타벅스 이미지만큼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다.”⁵⁷ 스타벅스의 인테리어, 로고, 메뉴판 구성 등은 어느 나라, 어느 매장에 가도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매장에 가도 동일한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스타벅스가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고 일괄성 있는 이미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미지가 반드시 당신의 영적인 삶을 형성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말씀 뿐 아니라 이미지의 활용이 자리 잡고 있다.”⁵⁸ 신앙이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히 시각적인 부분을 넘어

⁵⁶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115.

⁵⁷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1.

⁵⁸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149.

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관계(Connection)의 중요성이다. 스윗 박사는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커피는 관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은 경험을 가져다 준다.”⁵⁹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한 공간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스타벅스를 찾아 오지만 그 공간 안에서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관계적 경험들이 쌓인다. 스윗 박사는 교회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과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모임 장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곳, 지역사회의 축제 장소, 긴급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기지 등의 다역을 감당했다.”⁶⁰ 각자의 신앙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깊어진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관계하며 연결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이어지고 세워져 가는 관계속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윗 박사는 교회가 EPIC의 네 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성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과 경험하고 참여하며 이미지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관계를 통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

⁵⁹ Ibid., 170.

⁶⁰ Ibid., 188.

이 더욱 생동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 더 나아가 EPIC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1.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현대 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얻는 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교육, 경제, 예술, 심지어 신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며, “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한다.”⁶¹ 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실제 체험과 감각적 인지가 더 중요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다.

오늘날 경험은 경제와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과거 소비자들은 주로 상품의 기능과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그 제품이 제공하는 경험이 더 중요한 구매 동기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험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윗 박사는 이를 현대인들은 “경험이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⁶²고 표현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역시 경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단순한 관람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3D 기술이나 가상

⁶¹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67.

⁶² Ibid.

현실(VR)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학습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실습과 체험을 통해 더 깊이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이를 두고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에듀테인먼트를 원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극단적일수록 좋다.”⁶³ 고 말하며 오늘날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경험 중심의 패러다임은 신앙과 예배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의 교회는 주로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해졌다. 스윗 박사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 전통, 교회사 역자, 교회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⁶⁴ 고 말하며 사람들이 전통적 교리나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자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설교와 교리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윗은 이와 관련해 “총체적인 경험은(total experience)은 포스트모던 예배에 있어서(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표어이다. 새로운 설교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인 경험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이들은 Shekhinah(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경험들은 완전한 감각-청각, 시각, 촉각,

⁶³ Ibid.

⁶⁴ Ibid., 78.

미각, 후각-의 무장을 한데 묶어 진, 선, 미의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⁶⁵ 고 말하며, 현대 예배는 오감(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을 모두 동원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스윗 박사는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그것이 우상이 될 위험성도 경고한다. 그는 “경험은 중독될 뿐만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다”⁶⁶ 며, 교회가 지나치게 감각적 체험에만 집중할 경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교회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행에 휩쓸린다면 본연의 역할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스윗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치명적인 병, 즉 이 재난은 ‘유행병’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⁶⁷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려다 진리를 잃는 실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윗 박사는 “교회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⁶⁸ 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2.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오늘날의 사회는 소비자가 단순히 제품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

⁶⁵ Ibid., 78-79.

⁶⁶ Ibid., 81.

⁶⁷ Ibid., 83.

⁶⁸ Ibid.

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옷을 구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류의 디자인과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이키의 ‘나이키 바이 유(Nike By You)’⁶⁹는 소비자들이 운동화의 색상, 재료, 패턴을 직접 선택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운동화를 디자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러한 참여형 모델이 현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예를 들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단순한 콘텐츠 수용자를 넘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그리고 신앙적 영역에서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 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작용한다.”⁷⁰ 라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관찰자’로 머물지 않고 세상에 대한 참여자이자 함께 상호작용하는 자로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형성해간다.

⁶⁹ <https://www.nike.com/nike-by-you> [2024년 10월 28일 최종접속]

⁷⁰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94.

레너드 스윛트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변화를 통해 대리 문화 (representative culture)에서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통제를 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 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⁷¹는 신념에 기초해 조직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문화는 리더의 지침을 따르는 수동적 태도를 강조하며 개인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규율에 따른 행동이 중시되었다. 반면, 참여 문화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한다”⁷²는 점에서 대리 문화와는 상반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참여 문화는 리더십이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⁷³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조직에 대한 헌신과 공공의 선을 위한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하고 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원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⁷⁴는 레너드 스윛트의 말은 현대 사

⁷¹ Ibid., 100.

⁷² Ibid.

⁷³ Ibid.

⁷⁴ Ibid., 101-102.

회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회 공동체 또한 스윗은 참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⁷⁵는 그의 주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수동적 구조를 넘어서, 모든 교인이 적극적으로 목회에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포스트모던인은 신앙에서도 더욱 몰입적이고 체험적인 참여를 원한다. “포스트모던 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 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⁷⁶는 스윗의 말은 현대 예배 형태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 형식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설교 역시 일방적 전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다”⁷⁷라고 제안하며 회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회중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능동적

⁷⁵ Ibid., 115.

⁷⁶ Ibid., 115.

⁷⁷ Ibid., 117.

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레너드 스윗이 제안하는 참여 문화는 현대 교회가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 이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신앙과 삶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주체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교회는 이를 반영해 참여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시각적 요소와 이미지 중심의 소통 방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이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문자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이미지와 은유를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시각적 브랜드를 통해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또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시각적 감각을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고,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는 단순히 전통적인 언어와 이성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신앙과 영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한다.

레너드 스윗 교수는 포스트모던 문화가 추구하는 이미지 중심의 특성을 강조하며,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⁷⁸고 진단한다. 이는 교회가 기존의 이성적이며 지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은유와 이야기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명제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레너드 스윗은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⁷⁹라고 설명하며 언어의 제한을 넘어선 이미지와 은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이미지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레너드 스윗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가 “최대의 상표가 ‘교유한 이야기들’ 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할리우드가 아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⁸⁰라고 주장한다.

레너드 스윗은 또한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미지는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심오한 사고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는 “무언가를 은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 접근할 때”⁸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 “이

⁷⁸ Ibid., 133.

⁷⁹ Ibid., 134.

⁸⁰ Ibid.

⁸¹ Ibid., 138.

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⁸²을 강조한다. 이 모호함이 바로 이미지가 지닌 상징적 가치와 영적인 깊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며 교회가 이미지의 상징성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아직 언어 중심의 전통에 얽매어 있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는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⁸³고 말하며 교회가 미디어와 영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는 교회가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신앙을 표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이미지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간 정신 깊숙이 자리한 본능적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통해 생각을 만들고 은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 “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은유는 실재를 창조한다.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⁸⁴라는 스윗의 언급은 은유와 이미지가 인간 내면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교회 예배와 신앙 교육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배는 은유와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⁸⁵고 말하며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인간 영(spirit)을 변화시키는 과정임

⁸² Ibid.

⁸³ Ibid., 139.

⁸⁴ Ibid., 140.

⁸⁵ Ibid.

을 강조한다.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 영(spirit)의 문제”⁸⁶라는 그의 설명은 형식적 예배에서 벗어나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배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EPIC교회의 지향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에 대해 레너드 스윗은 교회가 “EPIC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로 하여금 대중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⁸⁷라고 설명한다. 이는 교회가 상업적인 이미지를 넘어 영적 성장을 돕는 건전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이미지의 영향력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도 강력하다. 레너드 스윗은 “말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은 몸을 쏘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말은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 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⁸⁸라고 경고하며 교회가 이미지를 단순히 시각적 도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매체로 다뤄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레너드 스윗의 주장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교회가 이미지와 은유의 힘을 통해 신앙을 보다 깊이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회는 이제 이미지와 은유의 시대에 발맞추어 영적인 메시지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⁸⁶ Ibid., 142.

⁸⁷ Ibid., 147.

⁸⁸ Ibid., 146.

4.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오늘날 사회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점차 연결성과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존재와 공동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변화로 이어졌다.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 이러한 연결성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혁명과 정보화로 인해 '연결'과 '공동체'라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개개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광범위한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변화시키며 개인과 공동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너드 스윗은 현대인의 이러한 관계망을 “연결(connected)과 공동체(community)라는 두 단어로 표현하며 이 두 단어가 ‘연결공동체(connexit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융합되었다”⁸⁹라고 설명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대인이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소속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레너드 스윗은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체성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이웃과 도덕, 영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EPIC 모델의 C가 '공동체'보다는 '관계성(connectedness)'을 뜻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별적 자아의 정체성은 상호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⁹⁰ 이에 따라 그는 “포스트모던의 ‘나’는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⁸⁹ Ibid., 163.

⁹⁰ Ibid., 169.

필요로 한다”⁹¹고 단언하며 포스트모던 문화의 핵심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레너드 스윗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관계의 형성을 강조한다. 교회는 단순히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개인이 풍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교회는 ‘관계’와 ‘관계성’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⁹²고 말하며 특히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설교, 가르침, 치유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사회적 그리고 영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목회자는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설교나 가르침에 들이는 노력만큼 치유의 능력을 갖고 닦아야 한다”⁹³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공동체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세 요소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며 교회의 목회와 사역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역설한다.

레너드 스윗은 궁극적으로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교회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대상”⁹⁴이라는 그의 말처럼 교회는 관계를 통해 신앙적이고 영적인 공

⁹¹ Ibid., 170.

⁹² Ibid., 173.

⁹³ Ibid., 173-174.

⁹⁴ Ibid., 173.

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순한 교리나 텍스트로서 전달하기보다는 “떡과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⁹⁵로 제시하여, 현대인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공동체적 경험과 연결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적 경험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⁹⁵ Ibid., 179.

제 V 장

세대별 EPIC 소그룹 적용: 뉴욕한인교회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사례

A. 102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본 연구의 적용은 지난 6년간 뉴욕한인교회(약 300명 규모) 교육부에서 약 15명 내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 소그룹 사역은 현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PIC 이론(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을 적용한 예배 및 활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교회 교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동적 학습을 지양하고 능동적 참여와 다감각적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신앙의 핵심 가치가 교리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설교 시간에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성경 속 인물을 형상화한 인형이나 관련 그림 자료를 직접 보거나 만지면서 말씀의 내용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EPIC 이론의 첫 번째 요소인 ‘경험(Experience)’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추상적인 신앙 개념을 구체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시각 자료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적극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지(Image)’ 요소를 통해 복잡한 신앙 개념을 시각화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5>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

배경이 되는 부직포 색깔을 여러가지로 도안한 후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혹은 상황들에 대한 교구들을 활용하여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아이들이 직접 교구를 만져보고 배경이 되는 부분에 옮겨도 보면서 직접 말씀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러가지 이미지의 교구들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들이 이미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설

교 내용을 좀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 측면에서는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만들거나 체험학습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창조 이야기’ 설교 이후에는 동물원에 방문하여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체험하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지역 사회에 있는 공원들의 나무들을 돌보는 활동을 함께 하는 등 말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체험형 프로그램은 EPIC 이론 중 ‘참여(Participation)’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아이들이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활동을 주도하고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활동 후에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각자 느낀 점이나 배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유대감도 강화되었다.



<그림6> 창조 이야기 설교 이후 동물원 방문



<그림7> 지역 공원과 협력하여 나무 돌보기 체험학습

이때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은 EPIC 이론의 마지막 요소인 ‘연결 (Connection)’을 기반으로 심화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교육부 소그룹은 소수 인원 (15명 내외)이었기에 구성원 간 친밀도가 높았으며 서로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주중에도 신앙적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함께 경험한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추가 학습이나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신앙 경험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그룹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활동 계획의 유연성과 지속적인 개선이다. 시즌별 혹은 아이들의 연령별 요구에 맞추어 교구나 영상 자료를 재구성하고 부모와 교사 간 긴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 매주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특히 활동 후에 관찰된 아이들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다음 주차 기획에 반영함으로써 반복 학습의 단순화나 흥미 저하를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뉴욕한인교회 교육부의 6년간 소그룹 사역은 EPIC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예배와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가운데 교구와 영상 자료를 통해 감각적 체험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교리 중심의 수업이 아닌 실제적 신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소그룹 내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아이들이 교회를 단순히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기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다른 교회나 교육 기관에서 EPIC 이론을 활용한 소그룹 모델을 도입할 때 유용한 실천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 304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본 연구자가 지난해부터 달라스 중앙감리교회(현재 약 1,000명의 교인 중 청장년 250명 규모)에서 새롭게 적용한 소그룹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모임보다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회의 소그룹(속회)은 총 23개로 구성되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속회 안에 포함되도록 편성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신앙적·연령별 요구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신앙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로고스 처치 속회 모임

식사: 체육관 예배: 아펜젤러 속회 모임: 배정된 룸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 **차일드 케어 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10학년 이상 Youth / 모든 성도님들

Youth 학생들에게는 Volunteer Hour 제공

봉사 시간: 오후 5시부터 8시 (3시간)

봉사 내용: 예배 안내 / 소그룹 진행 / 영유아 케어

신청 문의: 진익창 목사 973 975 5584

<신청 방법: QR 코드>





<그림8> 청장년 속회 광고 내용

이 소그룹 모델은 부모들이 온전히 나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교회는 정기 속회 모임마다 식사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에 서 자연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들이 말씀과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차일드 케어는 본 교회의 5060 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세대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교회 활동의 부담을 덜고 속회 나눔과 예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림9> 교회 차원의 식사 제공 및 차일드 케어 제공

속회 운영의 핵심은 ‘나눔’에 있다. 각 모임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후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EPIC 이론 중 ‘경험(Experience)’과 ‘참여(Participation)’를 동시에 실천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찬양과 말씀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상과 신앙을 서로 연결시켜 나누도록 함으로써 교리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이러한 나눔은 청장년층 특유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단절될 수 있는 신앙적 고민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차일드 케어 구조는 EPIC 이론의 ‘연결(Connection)’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넘어 5060 성도들이 돌봄과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기능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 내 세대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잠시 벗어나 영적·정서적 재충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 협력 구조는 단순히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가족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체 속회 진행 순서 (2월)

(10분)

기도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말씀봉독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

여는 질문

(30분)

1. 당신이 만약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히어로가 되고 싶나요? (ex. 배트맨, 할크, 아이언맨 등)
2. 당신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본문 이해

(10분)

속장 혹은 속교사님이 간략한 본문 내용 나눔

말씀 속으로

(30분)

1. 아굽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굽의 말을 전하며 무엇을 구했습니까? (17절)
2.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20절)

삶 속으로

(30분)

1. 당신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그림 10> 속회 진행 가이드 라인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소그룹(속회) 모델은 청장년층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EPIC 이론의 가치(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를 교회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신앙적 몰입과 세대 간 유대감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예배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C. 506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5060세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그룹 모델은 같은 연령대(장년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선교회’ 중심의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선교회는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봉사와 섬김을 활성화하며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소그룹과 구별된다. 특히 5060세대는 오랜 삶의 경험과 신앙적 성숙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선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교회는 5060 세대 내에서도 비슷한 연령 혹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룹들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그룹에서는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와 함께해 온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되짚는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대감은 이후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선교회는 본격적인 사역 기획 및 실천을 진행한다. 각 그룹은 교회 차원의 행사나 외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봉사 활동을

함께 고민하여 자신들의 은사와 관심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 지원, 청소년 대상 무료 학습 지원, 교회 시설 관리 봉사 등, 교회 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 프로젝트가 선교회별로 기획될 수 있다. 이후 실제로 각 그룹이 배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피드백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다음 봉사 기획의 질적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이 사역 속에서 느낀 보람과 배움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5060세대 소그룹 모델인 선교회는 ‘장년부 특유의 풍부한 경험과 신앙의 성숙’을 교회와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같은 또래끼리의 깊이 있는 교제와 공감대를 통해 관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이후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봉사와 선교 활동을 기획·실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층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모델은 5060세대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세대 간 협력을 통한 교회의 전체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D. 7080 세대의 EPIC 소그룹 적용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7080세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평생대학은 어르신들의 신앙과 실생활을 연계하며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델이다. 주된 목적은 영적 돌봄과 취미·교제 활동을 병행하여 어르신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소통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평생대학의 모든 모임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된다. 예배에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 된다. 이어지는 세미나 시간에는 건강 관리, 가정과 노년의 역할, 영적 성장 등에 관한 주제들의 세미나가 제공

되어 어르신들이 신앙을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배와 세미나 후에는 식사를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눈 뒤 다양한 취미 클래스로 이동한다. 음악, 카카오톡 사용법, 영어회화, 라인댄스, 탁구, 골프, 서예, 건강클럽, 종이공예, 성경공부 등으로 구성된 클래스들은 7080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하고 클래스에 참여하여 배움을 얻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서예 클래스에서는 성경 말씀을 서예로 표현하며 영적 묵상을 심화할 수 있고 라인댄스 클래스에서는 찬양 음악과 함께 신체를 움직여 건강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배우기 클래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교회 공동체 및 가족들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실질적 도움을 준다.

이러한 소그룹 구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연결(Connection)’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각 취미 클래스별로 소그룹 분위기가 형성되며 같은 관심사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게 된다. 건강클럽의 경우 운동 후에 신앙적 깨달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카카오톡 클래스에서 습득한 디지털 소통 능력은 다른 세대(자녀·손주)와의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온라인상에서 중보 기도나 교회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7080세대는 ‘교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평생대학 모델은 예배와 세미나, 식사, 다양한 취미 클래스를 결합하여 7080세대의 신앙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들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삶과 신앙을 통합해 나가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세대 간 조화를 이루고 폭넓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예배순서

2월 8일 토요일
아침 10시
사회: 진익창 목사

설교 : 이성철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다같이
대표기도		유병욱 장로
성경봉독		딤후 4:10-16
설교	“지금도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성철 목사
마지막 찬양		다같이
축도		이성철 목사
국민체조		다같이
광고		유병욱 장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16절

¹⁰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¹¹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¹²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¹³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¹⁴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매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¹⁵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¹⁶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광고

1.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이성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2025년부터 평생대학은 새로 부임하신 진익창 목사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3. 2025년 식사 후 1시부터 진행되는 Class 가 다음과 같이 총 10개반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음악반, 카톡반, 영어회화반, 라인댄스반, 탁구반, 골프반,
서예반, 시니어헬스반,종이공예반, 성경공부반.
오늘과 다음달까지 원하시는 반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는 출석부를
사용하겠습니다.
4. 오늘 떡은 김춘원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800 Carbon Rd. Irving, TX 75038
T. 972.258.0991 dallascenral.church

<그림 11> 평생대학 안내지

E. 각 세대별 EPIC 소그룹 평가

EPIC 이론(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을 기반으로 한 소그룹 운영은 세대별 신앙적 필요와 삶의 배경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신앙을 경험하는 방식과 공동체 내 역할이 세대마다 다르므로 각 연령층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신앙 성장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모든 세대에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020세대는 신앙을 개념적으로 배우기보다 직접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교리 중심의 교육보다는 감각적인 요소가 포함된 예배, 신앙을 활용한 창작 활동, 미디어 기반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다. 토론형 성경 공부와 실천적 신앙 활동을 통해 이들이 교회의 수동적 참석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험과 참여 중심의 접근이 지나치면 신앙이 감성적 이벤트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험적 요소 속에서도 성경적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단기적 감동이 아닌 지속적인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3040세대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책임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한다. 이들에게는 신앙을 삶의 문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도전과 성경적 원리를 연결하는 묵상, 부부 혹은 부모 모임을 통한 신앙 나눔, 실생활과 연결된 신앙 실천 활동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를 원하므로 소그룹 내에서도 온라인 기반의 신앙 나눔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신앙보다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신앙적 나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워크숍과 컨설팅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5060세대는 신앙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적 경험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단순한 성경 공부보다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는 "신앙 이야기 나누기"가 효과적이다. 또한, 이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소그룹 내에서 교회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신앙 활동과 새로운 형식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방식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7080세대는 신앙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신앙을 더욱 깊이 있는 형태로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들에게는 예배와 세미나를 결합한 신앙적 배움의 장이 필요하며 취미와 신앙을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서예로 표현하거나, 찬양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활동, 디지털 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및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새로운 기술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신앙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EPIC 소그룹 모델은 신앙을 보다 생동감 있게 경험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 경험과 시각적 요소에만 의존할 경우 신앙의 본질적 깊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험적 요소를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적 성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신앙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제 VI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인 교회 안에서 세대별 신앙 형성을 돕고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EPIC 이론을 제안하며 뉴욕한인교회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상황에 소그룹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EPIC 이론은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관계(Connection)의 네 가지 요인을 통해 세대별 특징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회 사역에서 단순히 교리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넘어 각 세대가 신앙을 몸소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1020 세대의 신앙 형성에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소통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EPIC 이론을 이 세대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직접적인 체험과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미지를 활용한 교육과 예배 콘텐츠로 이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소그룹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가볍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소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3040 세대는 가정과 직장에서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에 놓여 있기에 신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는 데 관심이 높다. EPIC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과 참여를 중시하는 사역을 제공하면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신앙 훈련이나 실천적 활동(봉사, 나눔 등)을 제안함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한층 몰입도 높은 공동체 경험을 누리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040 세대는 교회에서 받은 영적 에너지를 가정과 사회로 확장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

5060 세대는 한국 교회의 든든한 허리로 오랜 신앙 경험과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EPIC 이론을 적용하는 핵심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닌 풍부한 신앙적 자산은 젊은 세대에게 귀한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회는 이 멘토링 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세대와 연결점을 찾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7080 세대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살아 있는 증인들로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세대다. EPIC 이론이 제안하는 이미지와 관계의 요소는 특히 이들 세대의 영적 유산을 타 세대와 공유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간증, 예배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젊은 세대가 7080 세대의 진솔한 삶과 신앙을 간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존중과 이해는 교회 전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세대별 소그룹 자체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대 간 소그룹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때 교회 공동체는 한층 더 견고해진다. 특정 세대끼리만 모이는 모임을 넘어서 서로 다른 연령층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호 학습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가령 1020 세대가 젊은 시각을 제공하고 5060·7080 세대가 삶에서 얻

은 풍부한 지혜를 나누는 ‘통합 세대 소그룹’을 기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류는 각 세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회의 사역 전반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EPIC 이론을 통해 세대별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성장한다’는 교회의 공통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교회는 EPIC 이론의 경험·참여·이미지·관계를 토대로 공동체 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대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그리할 때 세대별 소그룹이 각자 필요한 신앙적 가치를 누릴 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번역 서적

Neal F. McBrid, *소그룹 인도법*, 서울: 네비게이토, 1997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7*,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London: Epworth Press, 1952

John Wesley, *Sermon 16: The Means of Grace,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5*,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John Wesley, *Journal, 1739,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1*,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8*,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1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London: William Bowyer, 1765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한국어 서적

김지찬,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 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9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이성희,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도서출판 규장, 1998

논문 및 간행물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조사* (2023 년 6 월 10 일 발표, 전국 만 19 세 이상 개신교인 2,000 명 대상, 2023 년 5 월 12 일부터 31 일까지 온라인 조사)

한국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 세 이상 개신교인 2,000 명 대상, 2023 년 1 월 9 일부터 16 일까지 온라인 조사).

웹사이트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7155>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270>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527>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2>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ricum.com/future/?idx=19206019&bmode=view>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399>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6719>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gawpc.com/post/5060> 세대-95 퍼센트-신앙은-역경을-이기는-힘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0096>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us/27319> (2025. 3. 3. 최종 접속)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81> (2025. 3. 3. 최종 접속)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2923&code=61221111&sid1=a11> (2025 년 3 월 4 일 최종접속)

<https://www.nike.com/nike-by-you> (2024 년 10 월 28 일 최종접속)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Ikchang Jin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une 11, 1988

Parent's Names: Hyunho Jin and Kyungae Park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ngnimmu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Bachelor	Feb 16, 2007
Drew Theological School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M.Div	May 1, 2015
Drew Theological School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M.A	May 1, 202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Ikchang Jin*

Name Ikchang Jin

Date Oct 31, 2024